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18호

각자의 개성의 발전시켜라

칭하이 무상사 / 2000. 5. 12 한국영동센터 국제선육 (원문 영어)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꼭 스승의 말대로 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유연성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일을 해나가 각기 개성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하이의 복사본이 될 필요는 없지요. 그건 정말 지루한 일이에요. 난 여러분이 장미 옆에 핀 백합처럼 나름대로 발전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복사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은 장미, 반은 백합인 꽃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대체 무슨 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이 좋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특별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서로 색다르고 특색이 있기를 바라는 신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내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적절한지 알아야 해요. 나라마다 풍습이 다른 법이지요.

예를 들어보지요. 일전에 내가 염색을 하니 그 다음 주엔 일부 출가승까지 모두 염색을 했더군요! (스승님과 제자들 웃음) 또 삭발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삭발을 했고, 다시 머리를 기르니 남자들까지 머리를 길렀지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니 사람들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승의 생활방식 때문에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들마다 다르므로, 여러분은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지혜를 기를 수 있지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여러분 맘에 든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에요. 일본 스승님에게 배우면 집과 모든 것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인도 스승, 인도스승에게 배우면 또 모든 것을 인도식으로 바꿔 인도 옷을 입고 인도식으로 집을 꾸미고, 인도음식을 먹습니다. (스승님과 제자 웃음) 스승을 따라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사실 겉모습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극단으로 치달으면 무엇이든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표현의 자유, 성장의 자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이 나의 복사본이 아닌 더 나은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자신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처럼 한다고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요. 나 역시 여러분을 따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순 없지만 괜찮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온갖 선입견과 편견, 여러분에게 이롭지 않은 온갖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법문을 배워 같은 지혜를 가졌어도 그 지혜는 각기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전기가 조명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조명으로 쓰이란 법은 없는 것이지요. 냉장고나 조리기구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이처럼 다양한 개성을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모두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각자 나름대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야지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선 안 됩니다.



앞표지 안쪽 / 스승님 말씀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자

2 센터 이벤트

밀레니엄 성탄절을 맞아 스승님께 감사드리다

6 / 11 / 19 / 24 스승님의 농담

어리석은 아이 / SOS(조난신호) / 닭 쫓아내기 / 파리 쫓아내는 방법

7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대한 성인의 완전한 모범 /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

폭력을 평화로 바꾸라 / 선물의 진정한 의미 /

그리스도의 정신이 빛나게 하라

11 신기한 감응

하늘을 나는 어린이

12 다채로운 이벤트

스웨덴 / 미국 / 프랑스 / 캐나다 / 호주 / 일본 / 포모사

15 토막 소식

새 천년 기념 수행가곡 콘테스트

16 제일선

사랑의 아홉방울

17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수행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 유쾌한 놀라움 / 빛이 생겼어요!

18 단체명상

페루에 7개의 센터가 새로 생기다

20 어둠 속의 등대

포모사 교도소 흥법 활동에 대한 종합보도 /

화렌 / 타오웬 / 까오핑 / 진먼 저녁뉴스 발췌

25 사랑의 실천

영적 상담팁 발췌

29 영혼의 고양

30 정신세계 정보

영적 수행의 비밀스런 보호

32 수행의 길목에서

오해를 딛고 깨달음으로

뒷표지 / 무상예술

우아한 실외등 / 이 겨울을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보내세요!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리, 지혜,
아름다움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18호

출판일자 : 2001. 11. 1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
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
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
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
고 있습니다.





새 시대로 전진하는
해피 요기

밀레니엄 성탄절을 맞아 스승님께 감사드리다



성탄절은 신께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

저희들이 해탈할 수 있도록 스승님을 보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후센터를 만들어서
관음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시후센터를 도와 지켜나가는
동료수행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화나라 시후센터에 들어서며

동수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동수와 그 가족들 등 방문객들이 즐겁고 성스러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시후센터와 여러 포
모사 센터들은 “밀레니엄 크리스마스 감사 경축행
사”를 열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시후
와 다른 센터에서 온 작업팀은 아름다운 축제장식
과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맛있는 간식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연하장이 팩스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하여 한껏 놀고 먹
고 스승님의 비디오와 다양한 공연을 보고 들으며
육신과 영혼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모두 신의 은총
에 감사드렸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6천여명이 넘
었다. 아침 일찍부터 인파가 시후센터로 밀물 듯
이 몰려들었다. 정문에서는 뉴스잡지에 나왔던 만
“강철 이빨”과 “큰 네모”, “소보리” 등이 사람들을
정겹게 맞이했다. 동수들이 분한 실제 사람 크기
의 이 캐릭터들은 방문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아이
들의 팔다리를 안아 올려 주기도 하여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정말 즐거운 광경이었다. 기
다란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많은 산타클로스
들은 사람들을 반갑게 맞으며 가방 속에 들은 비
밀스런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씩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인해 조용하고 엄숙했던 시후센터는 동
화에 나오는 천국이 되었다. 생기 넘치고 시끌벅
적하면서도 평화와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특히 시
후센터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
었다. 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온 고아원 어린이들도 초대받아 축제를 맘
껏 즐겼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린이들처럼 흥분된 모습으로 동수들이 디자인한 화려한 부스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며 부스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수들과 어린이, 어른 등 모든 방문객들의 눈에서는 행복의 빛이 퍼져나갔다.



스승님의 축복

축제의 공식 오프닝이 10시에 열려 방문자들과 동수들은 숲 속 중앙 명상홀에 모였다. 행사 진행자는 모두에게 신께 조용히 감사기도를 올리게 한 후 스승님이 자필로 보내신 팩스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사랑하는 신의 자녀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였고, 대형 스피커를 통해 스승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전해졌다. 문득 숲 속은 사랑으로 굽이치는 바다가 되어 사람들은 그 속에 폭 잠겨 들었다.

그 후 관음사자의 주재로 비디오 강연 시간*이 진행되었다. 관음사자는 우선 영적 수행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방문자들을 위해 스승님 비디오를 보여준 후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했다.



* 시후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일요일 관음사자의 주관 하에 비디오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 후 방편법 전수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동수들은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



성황리에 열린 가든파티

마침내 11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맛있는 채식요리들이 가든파티에 준비되었다. 30여 개의 전통 간식 부스에서는 포모사 곳곳에서 준비한 맛있고 감칠 맛 나는 요리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즐겁게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부스에 대해 계속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속까지 바짝 튀겨 향료로 맛을 낸 신쥬의 콩 요리와 타이난의 살짝 튀긴 채식 굴요리 부스에는 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채식요리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료음식 부스와는 별도로 판매용 채식케이크와 채식요리도 준비되어 있었다. 정말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천룡 차주전자로 달인 차 시음회였다. 열렬한 스승님의 창작품 애호가들은 천의와 천상의 보석 전시장에서 머문 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곳에는 관음 수행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명상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어 각자 목적에 맞는 물품을 구할 수 있었다. 우아하고 고전적인 순면 옷 전시장 역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부스들로 인해 가든파티는 특별한 성황을 이루었다.



무지개 정원 속 즐거운 나라

무지개 정원은 원래 11시에 개장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찌감치 길게 줄서 기다리던 어린이들의 열화와 같은 독촉으로 인해 일찍 문열어야 했다.

여러 게임을 준비한 20여 개의 부스 중에는 규모가 크고 긴장감이 감도는 곳, 신체능력을 시험하는 곳, 지능계발에 도움이 되는 곳, 아이들의 관찰력과 인내력, 집중력을 시험하는 부스도 있었다.



그 외 창의력을 발휘한 가장행렬이 열리는 곳도 있었다. 또 선인들의 지혜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죽풍우, 수수께끼 맞추기, 밀가루 인형 만들기,

팽이 돌리기와 같은 전통놀이 부스도 적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은 모든 걸 다 잊은 채 놀이에 푹 빠졌고 무지개 정원은 아이들의 천국이 되었다.



하느님의 웹사이트를 구경하러 오세요

전자시대에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뉴스그룹은 정오에 인터넷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특별 비디오 쇼를 준비했다. 또한 망고 나무 아래 인터넷 서비스 팀을 꾸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음법문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잡지를



읽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웹사이트의 클립보드를 통해 사람들은 스승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흥미로운 실시간 공연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경서유통 부스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종류의 영적 양식들을 제공해 끊임없이 들어서는 관객들이 스승님의 책과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림, 사진 등 다양한 품목들을 둘러봤다. 경서유통팀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후 1시, 수행교리 퀴즈시간을 가졌다. 풍성한 상품과 엄선된 교리 내용이 사람들을 끌어들이 많은 사람들이 퀴즈에 참가했고, 답을 맞춘 사람들 또한 많았다.



내면을 외부로 승화시킨 공연

경쾌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춤,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환상적인 천국의 풍경 등수천 명의 관객들은 해피요기 패션쇼의 서막에 경탄을 터트렸다. 무대에서 깨달음을 뜻하는 SM로고가 수놓아진 해피요기 의상을 입은 동수들은 매우 영적이면서도 활기차 보였다. 특히 돋보였던 해피요기 가족 패션쇼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함께 해피요기 의상을 입고 즐거워했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디자인된 해피요기 컬렉션을 통해 스승님의 풍부한 상상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전문적인 모델은 아니어도 동수들은 몸짓을 심분 활용해 행복한 요기 의상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전달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즐겁고 발랄한 모습에 감동 받았다.

오후 두 시에는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표현한 밀레니엄 크리스마스 경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치아이의 희극 “당백호와 추점향”은 정말 재미있었다. 창화의 동수들이 게스트 한 명과 함께 한 남중국 피리 연주는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타이종의 어린 입문자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를 맡은

어린이는 매우 상냥하고 평화롭게 보였으며, 다른 배우들도 역시 훌륭히 맡은 역을 해냈다. 까오핑의 동수들은 타이아 부족의 토속가무를 이국적인 의상과 멋진 춤실력으로 보여주어 남포모사의 7개 도시 챔피언이라는 명성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성한 신의 사랑과 은혜가 시후센터 크리스마스 경축행사에 참석한 동수들과 방문객들의 행복한 웃음 속에 나타났다. 우리는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드렸다. 조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찬 오후 네시 무렵, 천상의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영성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이 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런 성스러운 날이면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함께 살아 있는 큰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리게 된다. 우리에게 내면의 지혜를 다시금 일깨워 끊임없이 신의 은총과 빛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관음법문 가족들과 함께 영적 성장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스승님께 이 모든 감사를 드린다. 스승님, 언제나 건강하세요!



해피요기 패션쇼와 경축행사를 비디오로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18/ce.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news/118/ce.htm>

스승님의 농담

어리석은 아이

칭하이 무상사
 1998년 10월 3일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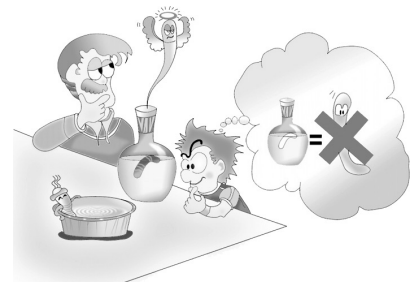
자식에게 음주가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컵을 가져와서, 한 개는 물로 채우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로 채우고 난 후 회충을 두 마리 집어와 컵마다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물에 들어간 회충은 살아서 컵 안 여기저기를 헤엄쳐 다녔지만, 포도주 속의 회충은 바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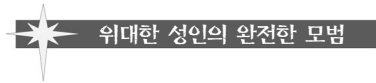
“자 봐라!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예, 알겠어요, 아버지.”

“무엇을 알았던 말이냐?”

“술을 마시면 뱃속의 회충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위대한 성인의 완전한 모범



칭하이 무상사
1990년 12월 24일
코스타리카(원문 영어)

2천 년 전, 우리들 가운데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도 위대한 분이어서 언어로는 도저히 그를 찬양할 말을 찾을 수 없지요. 오직 신만이 알 뿐,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 위대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위대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를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왜 예수는 이 땅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영광된 순간에 그토록 빨리 죽어야만 했을까?” 하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짧고 비참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의 이름은 잊혀졌을 겁니다. 신이 그를 그런 식으로 희생시킨 것은 온 세상이 그를 기억하고, 어떤 이름으로든 지상에 오는 신의 사자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은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잘못을 저지르며 신을 잊었지요. 그래서 신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 언제나 신의 사자를 보내야

만 했습니다. 예수는 그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머물렀던 짧은 생과 우리를 떠나 다시 부활한 그 위대함으로 인해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지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힘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신의 독생자였던 그가 왜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는지, 왜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이 영원하다고, 스승 또한 영원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예수 이전에도 다른 여러 스승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만큼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신을 기억하고 신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건 예수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달리 말하면 예수가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온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일찍 우리를 떠나야 했던 것은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수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지상에 존재한 생명들의 덧없음에 놀라게 되지요. 신의 아들조차도 죽어야만 했고, 우리 모두도 결국은 가야만 하니까요. 예수같이 위대한 분도 이 유한한 신체를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폭력과 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들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자신에게는 걸맞지 않는 그런 처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모두를 위해 고통받았던 것이지요.

예수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었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토록 위대한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육체의

무상함을 기억하게 되고 하다못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너무도 겸손해서 자신을 신에게 바치고 순종하며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피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은신술을 비롯한 많은 신통력이 있었지만, 그가 신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릴 때면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신의 뜻을 잇고 신을 거역하는 오만을 범한단 말인가? 우리가 뭐길래?’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한다면, 예수의 희생은 가치로써, 우리는 그의 제자이자 숭배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칭하이 무상사 / 1997년 12월 24일, 미국 워싱턴 (원문 영어)

예수를 잊지 마십시오. 그가 2천 년 전 힘들게 노력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신을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진 않지만, 2천 년 전에 그는 직접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영적 진보의 씨앗을 뿌려 우리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을 일깨워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대한 스승을 기념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요. 우리가 명상하며 신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이며, 성탄절을 경축하는 가장 멋진 방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합니다. 식탁에 누구의 피도 올리지 않는 등 정말 모두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탄절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폭력을 평화로 바꾸라

칭하이 무상사 / 1992년 12월 24일, 포모사 핑둥 (원문 중국어)

우리는 성탄절을 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 그들의 성장을 도운 다른 모든 성인들에게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최고의 힘에게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착하고 도덕적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다이너

마이트를 폭죽으로 바꿔 명절이 되면 불꽃놀이나 분위기를 돋굴 폭죽으로 사용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쓰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지요. 다이너마이트가 불꽃놀이나 폭죽으로 변하면 아이들



과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우리는 매일 폭죽을 터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긴 해도 우리는 즐겁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폭탄 속에 넣는다면, 그 소리가 폭죽소리와 비슷하다 해도 공포스러울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것을 견뎌낼 못하고, 생명 또한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영적 수행자나 영적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 모두 같

은 물질과 같은 정신, 같은 육체와 지성을 사용합니다. 영적 수행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가정에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이라도 사용에 따라 세상을 파괴하고 이 지구를 폐허로 만들 수도,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진실로 좋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고,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요.



선물의 진정한 의미

칭하이 무상사 / 1991년 2월 6일 코스타리카 (원문 영어)

많은 사람들이 주고싶은 마음도 없이 아무렇게나 선물하곤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설날이니까, 또는 어머니나 딸, 친구거나 남편이니까라는 이유로 그냥 선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물건이나 되는데로 삽니다. 그런 것은 받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에게 다 부담이 되지요. 마치 영혼이나 애정이 담기지 않은 빈 해골을 받는 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나 진심 어린 소망이나 애정 없이 선물을 준다면, 크리스마스나 새해라 해도 선물을 교환하는 건 좋은 풍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도 없이 선물을 주지요. 너무 바빠서 사랑을 담지도 못하며, 너무나 바빠서 애정을 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의 애정은 사라져 버리지요.

선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관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마음만 담겨 있다면 장미 한 송이로도 충분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인심이 후한지 보여주기 위해 커다란 꽃바구니를 사지만 거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바깥 사람들이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

네. 끔찍한 때가 되었군. 아, 아직 저 사람한테 줄 선물을 사지 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줄 것도 아직 못 샀는데 ……” 하고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부담일 뿐 사랑의 축제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우정과 사랑을 경축하는 것도 아닌, 아주 부담스러운 때가 된 것이지요. 일 년 중 가장 피곤한 때인 셈이지요.



사람들은 단지 서로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뿐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선물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쇼핑하는 건 아주 지루하게 느껴지지요. 모두들 서두릅니다. 할 일도 많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차도 많고, 포장할 선물도 너무 많고 …… 등등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급하게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애정을 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 때라면 살 생각도 안 하는 이상한 온갖 물건들을 사서 집에 쌓놓게 되지요. 때로는 자기가 준 선물이 친구 사이를 한 바퀴 돌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치워 버리기 위해 선물로 준 것인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온 거죠.

간혹 내가 여러분에게 성탄카드를 보내거나, 예쁘



고 귀여운 딸을 낳아도 그들을 위해 뭔가를 사거나 선물을 보내지 않는다고 매우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난 그런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사줘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아니오, 스승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그런 일로 날 속일 것 같지 않아서 난 그대로 믿어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예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아래위층을 오르내릴 필요가 있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도 스승인 내가 선물한 것이므로 자랑하기 위해 딸에게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단추가 꼭 끼거나 옷이 커도 스승이 주었으니 가짜가 많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이유로 여러분은 강제로 아이에게 입히려 할 겁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는 난 여러분에게 부담만 주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뿐이에요. 내

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내게 말하세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예외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추운 날씨에 입을 것도 없고 주변에 가게도 없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내 옷을 입으라고 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든 여러분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됩니다. 사람로부터 선물을 받지 말라는 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특별히 돌보게 하거나 물질공세를 기대하게 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신의 안배에 항상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머니나 친척 같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주는 것을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이 빛나게 하라

칭하이 무상사 / 1996년 12월 28일 미국 캘리포니 (원문 영어)



여러분은 매년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무 날에도 선물할 수 있고, 그럴 듯한 구실을 만들 수도 있지요. 생일날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대신 여러분이 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사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는 사람들, 혹은 거리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십시오. 밖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 준 그리스도의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온정을 일깨우기 위해 가끔씩 선물을 해도 괜찮지요.

여러분의 동료를 안아주세요. 그녀가 때때로 열등감과 콤플렉스,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녀에게 “당신은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을 항상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녀를 위해 선물을 사고 그녀의 옷을 칭찬해주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곤경에 빠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이 미움과 복수라면 여러분은 친절과 사랑으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자신이 마땅히 가야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어린이

중국 예비입문자 지 사형 (원문 중국어)

그 사건이 있던 2000년 6월 29일 아침, 예비입문자인 아내는 출근한 후였고, 나 역시 사무실에 일이 없는 관계로 하루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다. 그 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4살 된 아들이 집에서 혼자 풍선을 갖고 놀다가 풍선이 창문으로 날아가자 그것을 잡으려는 욕심에 그만 4층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진 것이다. 2층에는 병으로 요양 중인 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잘 보지도 않는 TV를 보려고 일어섰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걸 목격하게 되었다. 놀라 뛰어 내려간 그녀는 떨어진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이 친절한 노부인과 지나던 행인은 택시를 잡고 병원 응급실로 급히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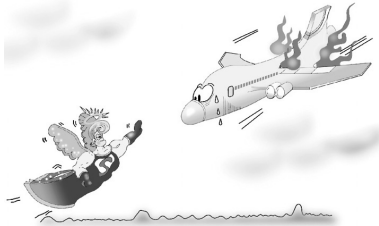
사고 전화를 받은 나는 초조한 한편 침착하게 마음 먹었다. 병원으로 가면서 난 “나무 칭하이 무상사” 하면서 스승님의 명호를 되뇌이며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아들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검사한 뒤 머리의 멍과 다리의 찰과상을 제외하곤 괜찮다는 최종 검진을 내렸다. 의료진들은 자신들이 직

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가족의功德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느님이 살려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난 아이를 구한 건 한없이 자비로운 스승님의 힘이란 걸 알고 있었다. 스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이는 오늘날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는 우리가 새로 구한 스승님의 사진을 가리키며, “엄마, 아빠, 이 두 스승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하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여러 번 절을 했다.

“저 스승님들이 널 구한 게 확실하니?” 하고 내가 묻자, 아이는 “아빠, 전 거짓말 안 해요. 착한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라며 말했다. 아이는 두 스승님을 보았는데, 그 중 한 분은 자기와 같이 떨어졌고, 다른 한 분은 땅에서 자신을 팔로 받아줬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대한 우리의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스승님은 이처럼 비입문자와 예비입문자들까지도 성심으로 잘 돌봐주시는데, 입문한 제자들은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겠는가!



스승님의 농담



SOS(조난신호)

칭하이 무상사 1998년 10월 3일 미국 플로리다(원문 : 중국어)

고장이 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공항 관제탑에 무선연락을 하여 말했습니다. “관제탑 나와라, 관제탑 나와라! SOS! SOS! 나는 육지에서 300마일 떨어져 있고 물위 600피트 위에 있다. 연료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또한 엔진에 불이 붙었다 ……계기들은 고장이고 부조종사는 심장발작중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제발 내게 지시를 해달라.” 그러자 관제탑에서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들어라, 조종사는 들어라, 나를 따라 복창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스웨덴 소식

2000 육체와 영혼 박람회

[스톡홀름] 스톡홀름 센터 입문자들은 2000년 11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육체와 영혼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관심이 높다. 금년 우리 전시대를 찾은 많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견본책을 챙겨갔다. 지난 번 박람회와 스승님의 책 등을 통해 이미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스승님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유난히 통찰력이 뛰어난 한 남성은 이 전시회에 참가한 단체들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뿐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수들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동수들이 육체와 영혼 박람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퍼다

들은 그 종류와 양에 있어서 모두 풍성했다. 채식거위 고기에서부터 매쉬 포테이토, 그레비 소스, 스프링롤, 콩 요리, 옥수수, 호박파이, 애플파이까지 제공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중서부 센터인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동수들은 지난 4년 간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왔다.

그 날은 화씨 30도까지 떨어져 유달리 추웠기에 보호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차와 커피를 제공했다. 한 사람마다 멋진 새 스웨터와 사탕 주머니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나눠 주었다. 맛껏 만찬을 즐긴 데다 뜻밖의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해했다.

보통 노숙자 보호소의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서 헌옷을 기부 받은 한다. 새 스웨터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더구나 이번엔 자신들의 치수에 맞는 옷을 고를 수 있는 기쁨도 있었다.

우리는 보호소의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껴안으며 신이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보답을 내리길 축복하며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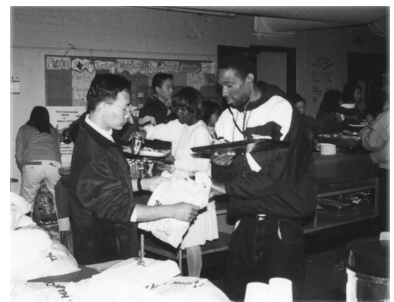
돌아갈 시간이 되자 우리 협회 회원들과 보호소 사람들은 모두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들의 얼굴에 비친 미소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신을 돕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모두의 내면이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미국 소식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 만찬

[신시내티]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 신시내티 노숙자 보호소의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요리들이 모두 갖춰진 최고급 만찬 대접을 받았다. 완벽한 채식재료만으로 만들어진 이 요리



추수감사절, 오하이오 신시내티 노숙자 보호소 사람들과 함께 신의 사랑을 나누다



프랑스 소식

지혜의 씨앗을 뿌리다.

[파리] 파리 동수들은 매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난 주에도 그런 강연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관음사자도 참석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승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다. 첫번째 비디오를 보고 난 사람들은 질의응답이 있는 두번째 비디오를 보자고 요청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관심이 있음이 분명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관음사자에게 채식주의와 어떻게 입문하여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남아서 방법법을 배운 사람들은 입문을 하고 싶어했다. 한 여성은 아직은 완전 채식을 할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방법법을 전수받은 후 너무나도 입문을 하고 싶어 바로 그 날부터 채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소식

홍법 수업의 멋진 시작

[차담] 작년 여름, 우리는 스승님의 영원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윌리스버그 부근에서 열린 완보 축제 외에 온타리오 주의 차담에서도 두 차례의 축제와 한 번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적인 행사로 나흘 동안 열린 차담 축제 기간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얻은 축복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이 행사는 음악과 민속음식을 통한 다문화주의 이해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축제 첫 날엔 큰 비구름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10분 동안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 후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도시 저편에 나타났다. 하지만 비구름의 영향권에 있어인지 무지개 부근에서 번개가 내리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스승님이

이 지역을 정화하고 축복을 내리시고 있음이 틀림 없었다. 이 4일 동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런던에서 온타리오로 온 한 사형은 열성적으로 우리 전시대 일을 도와주었으며, 전시대를 둘러보러 다니던 두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우리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했다.

이러한 행사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더 많은 영적 씨앗을 심어줄 수 있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주 멋진 첫 경험을 한 셈이었다.



동수들이 온타리오 차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호주 소식

2000 의식있는 삶 박람회

[필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덕택으로 필스 센터는 “2000 의식 있는 삶 박람회”에 다시 한번 참가하게 되었다. 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4일간의 드문 기회였다. 금년 박람



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규모가 컸으며 매일 박람회장을 찾는 구도자들로 더욱 빛났다. 금년 우리 전시대는 회장을 들어서는 방문객들에게 잘 보이는 회장 입구 거의 맞은 편에 자리를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시대로 와서 우리가 연속해서 보여주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시청했다. 우리 전시대를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뉴스잡지와 견본책을 무료로 나눠 주는 걸보고 놀라워했다.

스승님이 뿌리신 지혜의 씨앗이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길 우리는 끈기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

내내 스승님의 일본 강연 비디오를 틀어 놓았다. 채식요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야채로 속을 채운 스프링롤과 경단, 빵과 케이크 등 축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매진되었다.



동수들이 행사장의 쓰레기를 모아 분류하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주차장 안내원 뿐 아니라 쓰레기를 모아 분류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축제에서 같이 일했던 모든 동수들은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해피요기’ 조끼를 입었는데, 이 옷은 우리의 유니폼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 행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채식의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일본 소식

아시아 도시문화 축제 2000

[도쿄] 일본 황실 궁궐 근처의 히비야 공원에서 “아시아 도시 축제 2000”이 2000년 9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렸다. 이 축제는 아시아 각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정을 다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시아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준비되었다. 전통 춤과 음악이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동안 각 참가국의 부스에서는 특산품과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었다.

일본 동수들은 이번 축제에 두 개의 전시대를 마련하여, 한 곳에는 스승님의 책과 강연비디오 테이프를 전시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다양한 채식요리를 선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기 위해 일본동수들이 “2000 아시아 도시 축제”에 참가하다

였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 테이프를 전시한 부스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스승님에 대해 알렸으며 행사 기간



포모사 소식

추수감사절 자선행사

[타이난] 11월 19일, 타이난 동수들은 타이난 “정의의 공원”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가했다. 이 행사의 주제는 “영광의 얼굴, 헌신적인 경찰, 시민과 경찰간의 연대”였다. 장잉 기독교대학이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타이난 경찰에 격려와 감사표시를 표하기 위해 개최한 이 행사에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난 센터가 추수감사 자선행사에 참가하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여러 단체들도 참석했다. 타이난 센터의 주방팀은 먹음직스런 채식음식과 간식 등을 준비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준비한 음식은 오전 11시쯤 이미 다 팔렸고, 이 날 행사의 수익금인 NT15,000달러(미화 약 550달러)는 경찰관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는 경찰 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되었다.

타이난 해변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다

[타이난] 중추절 해변청소 활동 후에도 타이난 센터의 동수들은 12월 16일에도 타이난의 골든 코스트 청소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주말에 열렸기 때문에 많은 동류수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그 중

에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가족들을 동반한 동수들도 있었다. 이동방송 차량은 해변을 순회하며 그 음악 공연과 스승님의 사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즉각개오- 일세해탈’ 이 인쇄된 다양한 색깔의 풍선들을 여행 온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그곳 해변의 쓰레기를 치워 본래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고자 열심히 일했다.



타이난 센터 동수들이 골든 코스트 해변을 청소하다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골든 코스트 보존활동을 펴고 있다는 내용의 팻말을 특별히 설치했다)



토막소식

새 천년 기쁨 수행가곡 콘테스트

여러분은 몇 년 전 시후에서 울려 퍼지던 조화롭고 감미로운 곡조들을 기억하십니까? 수행가곡 경연대회에서 청중을 감동시킨 우아한 음악이 깨달은 스승의 아쉬움을 가득 메우며 날아오르는 듯한 곡조와 맑게 울리는 목소리들이 수행의 길을 따르는 인간 여정의 진실된 삶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주었습니다. “훌륭한 노래는 심금을 울려 생각과 관념을 바꾸고, 영적 수행에 영감을 불어넣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감동적인 체험을 악보로 옮겨 서정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곡조로 다음 세대 수행자들의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응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소속센터, 가사와 악보, 혹은 자신의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를 갖춰 2001년 3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신 지원자들은 수행창작가곡 경연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켜 주십시오. 참가곡의 가사가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경우,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주소: P.O. Box 9, Hsihu, Miaoli County, Taiwan /

이메일 주소: spiritualsong@Godsdirectcontact.org

제 1회와 2회 수행창작 가곡 경연대회를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ght_sound/spiritualsong

영문 수행창작가곡을 들으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piritual/songs> (USA)



사랑의 아홉 방울



재키 찬트레인 사형 / 벨기에 브뤼셀 (원문 영어)

역사적인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중세양식 건물

에스토니아는 발틱 연안에 위치한 인구 1백 50만 명의 작은 공화국으로 1991년에 독립하였다. 에스토니아어는 핀란드어, 헝가리어와 유사하며 러시아 우랄 어족의 일부에 속한다. 에스토니아의 공식 명칭은 에이티이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몇 주 앞두고 알게 된 나는 스승님의 방문이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에스토니아에 견본책을 몇 권 나눠 주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엄청난 양의 교재를 챙겨가야 했기에 많은 견본책을 가져가는 건 무리이기도 했다. 그 전에 어떤 언어로 된 견본책을 가져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아직 에스토니아어로 된 견본책이 없었고 러시아 견본책은 내게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에스토니아 인구의 26%가 대학교육을 받았고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난 영어로 된 견본책을 가져갔다.

헬싱키와 탈린(에스토니아의 수도)의 거리는 80 킬로미터, 두 도시는 핀란드만(灣)으로 나뉘져 있을 뿐이었다. 날씨만 좋으면 고속보트로 1시간 40분 안에 해안을 건널 수 있지만, 바다 표면이 얼었을 땐 큰 보트들이 얼음을 깨야 해서 3, 4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다행히 11월 말이었던 그 날은 날이 좋았다.

탈린에 도착하자 날씨가 추워져 도로의 물이 얼어 붙었다. 탈린의 오래된 마을은 마치 보석처럼 아직 중세시대의 모습 그대로 중세의 성벽들로 감싸여 있었다. 나는 스스로 ‘사랑의 아홉 방울’ 이라고 이름지은 견본책 아홉 권을 어디에 나눠 줄지 생각해 보았다. 에스토니아에는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여부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나눠 주고 싶진 않았다.

난 인연에 맡기기로 했다. 중세적인 도시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때 나의 내면에선 ‘여긴 아니야, 좋은 곳 이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목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다.

이 유서 깊은 도시를 걸어나다다가 작은 서점을 두 군데 발견한 나는 그 중 첫번째 서점에 들어갔다. 그곳의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무료책자를 받는 데 익숙지 않아 판매원은 지배인을 불러 애길 해보라고 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지배인은 손님들을 위해 견본책을 받아 놓기로 했다.

다음으로 나는 부리미히 거리에 있는 두번째 서점에 들어가 지배인에게 견본책을 비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먼저 사람처럼 놀라워했지만, 결국 견본책을 종교 코너에 진열해 주겠다고 했다.

에스토니아엔 사랑의 아홉 방울만이 나눠졌지만, 난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수백 만의 물방울로 사랑의 바다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기에 물방울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단지 시작이 중요할 뿐인 것이다.

농사로 쳐도 좋은 인연이 닿는다면 아홉 개의 씨앗이 수천의 꽃나무로 자라날 테니까 말이다. 누가 견본책을 읽을까? 누가 이 견본책 중 하나를 읽고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 아마 그 중 한 사람은 에스토니아의 첫번째 연락인이 되겠지 ……

보트가 기다리는 항구로 돌아오며 내 마음 속엔 계속 같은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사랑의 아홉 방울 …… 사랑의 아홉 방울 ……”



수행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중국 사천성의 한 입문자
관음사자 기록

1999년 말, 난 태국 밀레니엄 선 참가를 준비하느라 바쁘고 들떠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키가 작은 남자 하나가 오더니 “사저, 사저! 태국 선에 갈 건가요?” 하고 물었다. “물론이죠!”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는 “제발, 스승님께 부탁드려 주세요. 대중들이 명상으로 얻은 공덕을 내게 회향시켜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곳도 아름답긴 하지만 난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요. 살아 생전 일하고 돈 버느라 너무 바빠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후회돼요. 그러니 내 부탁 좀 들어줘요” 하고 말했다.

당황한 나는 다른 사저에게 이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한 사형의 집으로 데려가 그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 사람이었다! 이번 일로 나는 너무나 짧은 이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부터 절대로 명상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유쾌한 놀라움

중국 쉬닌의 한 입문자
관음사자 기록

중국 본토의 몇몇 입문자들은 태국 밀레니엄 선에 제때 맞춰 참가할 수 없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스승님이 떠나신 뒤였고 우리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날 우리는 여행사와 함께 라마 왕의 궁전을 방문하고 있었다. 모두 기분이 울적한 탓인지 사저 한 사람을 제외하곤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사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되어 뛰어나오더니 우리에게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스승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었다! 안으로 뛰어들어간 우리는 높은 왕좌에 앉아 계신 스승님(화신 스승님)을 볼 수 있었다. 우린 그 자리에 앉아 명상을 했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에 기운이 솟아났다. 여행 안내원은 무척 황당해 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이상하군요. 조금 전만 해도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더니, 지금은 또 아무도 나오려 하질 않네요!”

빛이 생겼어요!

중국 쉬닌의 한 입문자
관음사자 기록

내 딸은 입문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영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게 된 이후, 매일 내가 나갈 때면 딸은 “아빠에게 빛이 나요!” 하고 말했다가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빠, 빛이 없어졌어요” 하고 말한다. 저녁에 잠들 때면 내 옆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고, 그 애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게 생긴 천사가 있다면서 무서워하곤 했다.

딸은 스승님과 관계된 모든 것의 빛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승님 사진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었다. 한번은 관음사자가 시후센터의 감로강에서 떠온 물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나는 생수를 몇 병 사서 감로수와 섞어 동수들에게 나눠 주려고 준비해 놓았다. 딸이 집에 돌아와 물을 달라기에 그냥 생수를 줬더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센터에서 가져온 물을 가리키고는, “난 저 물을 마실래요” 하고 말했다.

어느 날, 내가 입문식에서 가져온 축복과자를 보더니 딸은 “정말 밝은 빛이 나네!” 하더니 과자를 다 먹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소리쳤다. “나한테서 빛이 나요!” 관음사자가 쉬닌으로 온 후 딸은 축복과자를 먹을 기회가 많아졌고 이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되어 집중만 하면 자기 몸 어디에서든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페루에 7개의 센터가 새로 생기다

에드가 나달 사형 / 페루 리마 (원문 스페인어)

1999년 5월, 리마에 온 관음사자로 인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으며, 또한 당시 페루에 있던 다섯 곳의 명상 센터의 모습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음사자가 남부 고산지방을 방문하자 몇 차례의 영상 강연회로 스승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었다. 강연회마다 가득 찬 청중들은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등록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젊은 세대였다.

관음사자의 체류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점을 일깨워 주어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 우리는 관음사자로부터 영상 강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해주라는 제안을 받았다.

우리는 스승님의 성스러운 사랑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빛을 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우리가 방문했던 지방의 형제자매들이 방편법 전수를 언제 할 것인지 전화로 끊임없이 문의해 왔었는데, 마침내 그 때가 온 것이다!



페루 친차 시



페루 이카 지방



페루 파스코 시



페루 후아누코

우리는 1999년 7월부터 이카 지방의 수도를 비롯하여 아푸리막 지방의 아반케이, 친차, 후아누코, 바랑카, 침보테에서 여섯 차례의 영상 강연회를 개최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행사는 매년 성공적이었다. 강연회마다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방편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많은 지역 동수들과 예비 동수들이 자신의 집을 단체명상 센터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카 지방의 수도에서 흥법을 끝낸 2000년 6월 경에는 페루의 명상센터 수가 11개로 늘어났다.

2000년 10월, 한 동수가 우리에게 파스코 시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해달라고 연락해 왔다. 이 도시는 중부 페루에서도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해발 4400m이 넘는 유명

한 광산촌이다. 이곳은 기온이 매우 낮아 일년 내내 눈이 내린다. 연락을 받은 세 명의 사형들은 스승님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역의 한 채식식당 주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동에 필요



침보테 시(市)



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햇볕이 따사롭게 비춘 강연회 당일, 참석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이 지역 광산의 엔지니어들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본 후 참석자들은 활발한 토론을 시작했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은 진리를 전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스승님의 놀라운 과업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영적 지원이야말로 현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지난 5개월 동안 채식해왔다고 말했다. 이 고산 지대의 산소부족으로 인해 적혈구 과다로 인한 병에

걸렸기 때문인데,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후 육식을 금하고 완전 채식하라는 의사의 권고 이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손님은 다른 많은 참석자들과 함께 방법법을 배우기 위해 등록하였고, 입문 신청도 했다. 그 날 이후 토레 유스티아노의 집에 페루의 12번째 명상센터가 생겼다.

사랑하는 스승님, 저희에게 힘과 사랑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페루의 땅에 지혜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 쫓아내기

칭하이 무상사/ 1998년 10월 3일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아름다운 정원과 화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원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놓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이 늘 풀어놓는 닭들이 정원을 넘어 들어와 꽃을 따먹고 뿌리를 헤쳐놓는 바람에 정원이 엉망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게 암탉들을 닭장에 가둬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이 대답했습니다. “난 그런 구속과 감금을 좋아 하지 않아요. 닭들도 신의 피조물이니 그들에게도 원하는 곳을 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닭들을 돌아다니게 내버려두었습니다. 닭들은 그가 심어 놓은 꽃과 옥수수 등 온갖 것들을 좋아해서 그의 정원을 자주 방문하곤 했지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정원의 꽃들이 아직 멀쩡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 이웃을 설득해서 닭들이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달걀 한 꾸러미를 화단에 숨겨놨다가 그 이웃이 볼 때 달걀들을 주워담는 시늉만 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 후 이웃은 닭들을 집안에 가둬놓게 되었답니다.

포모사 교도소 홍법 활동에 대한 종합보도



전 세계의 재소자들은 항상 칭하이 무상사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체험한다. 스승님의 시각으로는 그들이 단지 우리 시대의 희생자이며, 이 사바세계의 인과에 휩쓸린 신의 자녀일 뿐이다. 1989년 칭하이 무상사는 이란과 화렌 교도소의 재소자를 방문,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겨울 햇살처럼 스승님은 단 몇 분만에 수백 명의 재소자들의 가슴을 녹였다.

스승님은 언젠가 철창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부류에 속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그들이 그 에너지를 사회에 유익한 영적 수행에 돌린다면 그 공헌과 성과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하셨다.

세계 순회강연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승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전 세계 센터에 연락하여 많은 지역의 재소자들에게 스승님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라고 이르시곤 하셨다. 수년 동안 전 세계 동수들은 교도소에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이런 활동은 재소자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의 정신을 순화시켜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는 보다 평화롭게 되었다. 많은 정부와 교도소 당국은 이같은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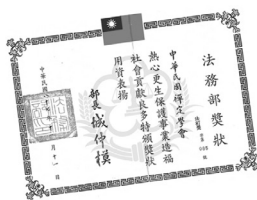
이번 뉴스잡지에서는 포모사에서 펼친 최근 교도소 홍법활동에 대한 보도 외에,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포모사 센터들의 이전 교도소 홍법활동에 대해 간략한 경과 보고문을 신기로 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소자들이 하루 속히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

- *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영적 고양을 위한 수많은 교도소 강연회가 개최됨
- * 우리의 적극적인 재소자 교화활동에 대한 포모사 법무장관의 표창장 (A)
- * 1998년 SMCH 국제협회, 화렌 법무국으로부터 2년 간 명예 관찰관으로 위촉받음
- * 1999년 재소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격려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명상법 지도 등의 교도소 상담활동. 뛰어난 성과를 얻어 빈번하게 감사편지를 받게 됨.

1.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갱생 교화상”-행정부 유안 장관 수여 (B)
2. “보호훈련 사업 우수상” 포모사 고등법원 검찰서 수여 (C)
3. 2000년 헌신적인 교화활동에 대한 포모사 사법부의 표창장을 다시 수상함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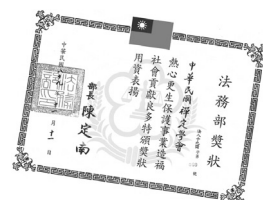
(B)



(A)



(C)



(D)



자신을 극복하는 수행 - 공동학습으로 밝은 미래를 창조하다

[화렌] 화렌 교도소 조사부는 재소자들이 출소한 후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길 희망했고, 사법부 역시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배우자와 서로 감정을 잘 소통해 배워나갈 수 있길 희망했다.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 많은 여자 재소자들이 방편법을 배우고 싶어했기 때문에 지역 입문자들은 화렌 교도소에서 “자신을 극복하는 수행- 공동학습으로 밝은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열었고 방편법을 전수했다.

세 명의 교도관이 조사부 직원들과 함께 우리를 입구에서부터 정중히 맞이해 주었다. 마침 중추절 전날이라 우리는 재소자 개개인에게 줄 200인 분의 채식을 준비해 갔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구역의 여자 재소자들만이 영적 성장을 위한 이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강연회 시간에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부부간의 조화 및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고부간의 화합을 돕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실례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잘 이해시켰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종종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하였다.

강연회가 끝난 후 재소자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하며 우리는 그들이 방편법을 통해 내면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열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해 보았다.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모두 명상 중 좋은 체험을 했다. 이후 우리는 세계와 사회, 그들의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참석자 중에는 강연회 도중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단체 기도 후 우리는 개개인에게 음식물 꾸러미를 나눠 주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건강을 보살피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소자 모두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했다. 우리는 마음 속 깊이 그들이 하루 속히 자유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희망했다.

화렌 여자교도소를 방문하여, 강연회를 열고 방편법을 전수하다.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활동 생명과의 대화

[화렌] 2000년 11월 17일, SMCH 협회의 화렌 센터와 포모사 갱생 보호소 화렌 지부의 공동 주관으로 화렌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생명과과의 대화” 상담활동이 개최되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재소자들이 생명과의 대화를 통해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모든 생명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생존에 대한 강

어둠 속의 등대

한 의지를 이해시키고, 참가자들 내면에 자리한 삶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약 300명의 여자 재소자가 참가한 이번 활동은 슬라이드를 통해 “생명과의 대화”의 의미와 수많은 존재들이 피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특유의 존재방식과 생명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지 보여 주었다. 큰 나무, 작은 풀, 새, 곤충, 물고기 등 모두들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히면 그들에게 부여된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한다.

우리는 또한 재소자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개인적 어려움과 좌절을 잘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며 방편법을 가르쳐 주었다.



영적 상담과 마약방지 세미나

[타오웬] 사회윤리 개념이 희미해지고, 술집과 무도장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포모사에서는 마약오용이 문제되고 있다. 무분별한 마약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타오웬 여자 교도소의 약물 재활치료 센터는 재소자들에게 마약의 영향을 잘 이해시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약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했다. 교도소장은 SMCH 국제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재소자들을 위해 강연회를 부탁했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재소자 교회활동에 대한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사법부 정책에 따라, 우리는 9월 26일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타오웬 여자 교도소에서 단체 정신 상담을 실시하고 교도소의 마약 이용자 사회복귀센터에서 마약방지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 의대 강사인 한 동수는 마약오용으로 야기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과 그 예방책에 대해 교훈적인 토의를 열었다.

이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거둬 두 번 모두 수백 명의 재소자들이 정신상담 활동에 참석했다. 동료수행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토의에 융합시켜 참석자들이 그들의 내면의 힘과 지혜를 개발하여 올바른 삶의 개념과 가치를 키워나갈 것을 장려했다. 입문자들은 또한 그들이 수양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듬어 이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많은 참석자들은 토의 중 개인적인 문제를 토로했으며 앞으로 자신들이 나갈 방향을 확인하고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다.

강사를 맡은 동수는 실감나는 만화를 통해 주제 발표를 하며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마약 방지 강연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힘을 얻고, 과거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다른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스승님의 감로법어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참회와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기해선 안 되며,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와 대면해야 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수들은 참석자들에 대한 스승



타오웬 여자 교도소의 약물 재활치료 센터에서 재소자들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주다

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한 후 방편법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예전에는 일과 중 하나였던 묵상과 명상에 그다지 관심 없었던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방편 명상법에 큰 관심을 보여 방편법을 배워 명상했다. 대부분 명상 도중 편안함이 느껴졌으며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고 한다. 정신적인 문제와 의학지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동수들은 최대한 상세히 답변해 주었다. 입문자들이 작별을 아쉬워하며 떠날 무렵, 교도소 당국은 우리 단체와 동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앞으로도 종종 그들을 방문해주길 희망했다.



까오슝 여자 교도소에서 진리를 나누다

[까오핑] 까오슝 시 샤오강 지역에 위치한 까오슝 여자 교도소는 약 750명 정도의 여자 재소자를 위한 큰 시설로 다른 종교단체의 영적 활동이 간혹 수행되던 곳이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또한 여러 해 동안 포모사 교도소에서 영적 활동을 펼쳐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사회 각계각층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최근 까오슝 교도소 당국은 지역 입문자들의 흥법 프로그램 개최를 두팔 벌려 환영했다.

우리가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당국은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했다. 따스하게 장식된 행사장을 보면서 우리 동료수행자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나라 세심한 주의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제들의 노래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그 즉시 온정과 열의로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간격이 좁아졌다. 재소자들은 사제들의 정성을 다한 공연에 계속 박수를 보냄으로써 성원해 주었다. 공연장소는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다”와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비디오를 보여주자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주변은 따뜻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 뒤이어 관음사자가 방편법을 전수하자 모든 재소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방편법을 배웠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행사 후 교도소 부소장이 대표로 스승님의 책과 오디오 테이프 등을 선물 받았다. 그녀는 또한 우리 협회의 정신과 사랑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동수들은 스승님의 견본책과 축복음식을 재소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헤어지길 아쉬워하는 그들의 열렬한 박수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쉬 추이팡 부소장이 까오슝 여자 교도소를 대표하여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와 오디오 테이프, 책 등을 선물로 받다.



아쉬움 속에 따뜻한 박수로 작별인사를 하는 재소자들

SMCH 협회 회원들, 어제 '대동(大同)의 집' 과 진면 교도소 방문 영적 강연회와 자선 공연으로 활력과 온정을 가져다 주다



[진면, 통센파오 기자] 어제 SMCH 국제협회 회원들은 '대동의 집' 의 노인과 고아, 진면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방문해 멋진 자선공연을 펼쳐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대동의 집의 엔 은웨이 주임은 이번 SMCH 협회의 방문이 이 지역의 큰 축복이며, 평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도운 활동으로 그 지명도가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진면을 방문했을 때, 입문자들은 지원자들이 준비한 뛰어난 공연을 보여주고 대동의 집에 식품구입비로 NT 10,000달러(미화 약 300달러)를 기부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들의 마음과 구조품 제공은 사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엔 주임은 SMCH 협회에 최대한 경의를 표하며, 협회가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다 자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명상의 이로움을 알려주길 희망했다.

방문 중에, SMCH 협회 회원들은 대동의 집 거주자들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방편 명상법을 가르쳐 그들이 암울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과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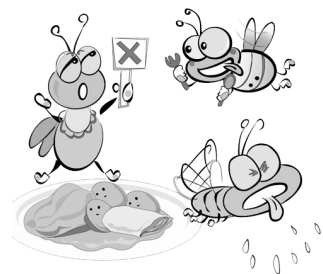
SMCH 협회 회원들은 대동의 집을 방문하여, 화려한 춤과 노래를 공연하고, 아이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진: 통센파오 기자]

스승님의 농담



파리 쫓아내는 방법

칭하이 무상사 / 1998년 10월 3일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간이식당의 종업원에게 손님이 물었어요. “이봐요, 수잔. 어떻게 이 커피숍에서 파리들을 모조리 쫓아냈는지 말해줄래요?” 그녀는 대답했다. “난 그냥 재료들을 맛보게 내버려두었을 뿐이에요!”

영적 상담팀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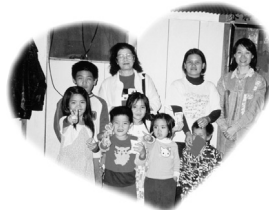
비록 여러분에게겐 제가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저를 믿어주세요.
당신의 심신이 큰 상처를 입을 때
난 당신의 옆에서 당신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울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 명상협회의 회원들은 재난 구호작업을 펼 때, 가능하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희생자들을 도와 그들이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하고 스스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희망했다. 포모사 전국 연락인들은 범국가적 영적 상담팀의 발족을 놓고 의논하면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팀원들의 교육을 맡을 책임자로 20년 이상 임상치료 경험이 있는 한 동수를 추천했다.

이 영적 상담팀은 재난 이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심身に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을 시기 적절하게 도와 희생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팀원과 희생자들 상호간에 감정을 나눠 갖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 중 재해를 당했을 당시 희생자들의 친구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놓고 성심성의로 들어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 단계를 지나면 영적 상담팀은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학적 자문이나 예비 정신분석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요구가 따르면 언제나 전문 상담 조직이나 사회복지 상담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해 더 나은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포모사의 여러 센터에서 영적 상담팀의 일원이 될 동수들을 선별했다. 오계와 완전 채식을 준수하고,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 생명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스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영감에 감동을 받고 깨달은 이 입문자들은 스승님을 따라 전 세계에 걸친 구호작업에 참여해 왔다. 예로부터 증명되어 왔듯이 수많은 동수들이 스승님께 훈련을 받은 후 새로 태어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더욱 강해졌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해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내곤 했다. 자원한 이 입문자들은 언제나 스승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보살심(菩薩心)으로 보살행(菩薩行)을 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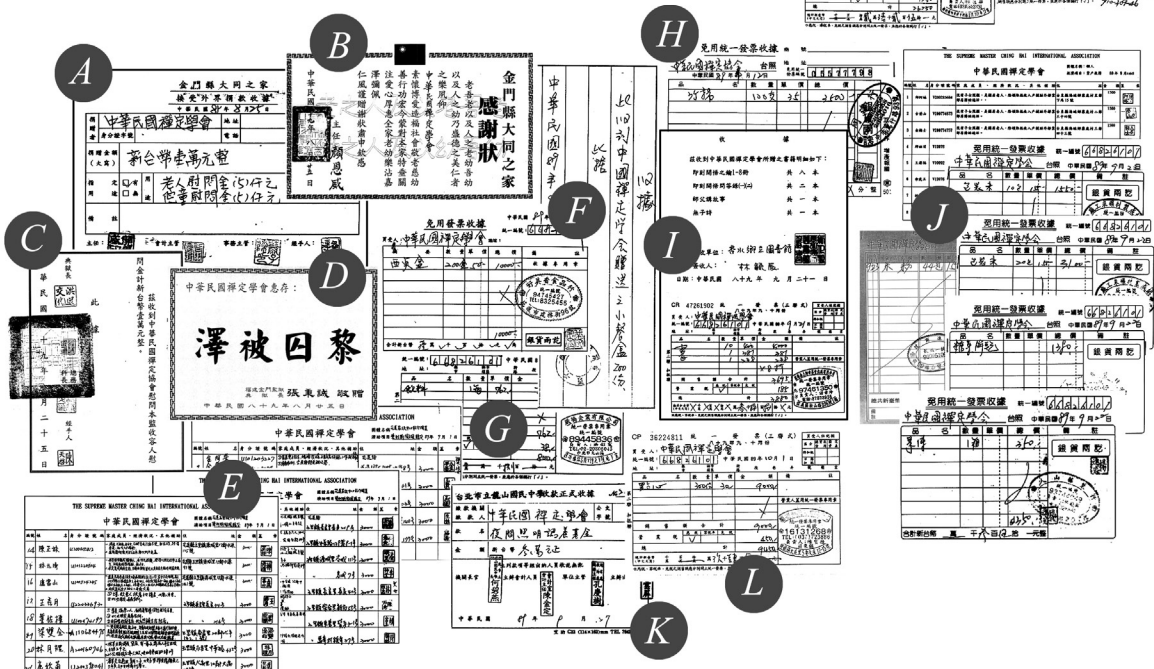
상담팀의 임상 훈련이 있던 날, 300여 명이 넘는 포모사 전역의 동수들이 시후센터 무지개 정원에 모여 진지하게 경청하고 실습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부끄러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두들 마음을 터놓고 행동하며 자신의 순수하고 솔직한 말을 몸짓과 일치시켜 표현했다. 또한 해야 할 일과 금해야





포모사! 우리는 준비되었다! 스승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전된 우리는 가장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 교육과정 강사인 양사저는 국제 라이프라인(자살 방지 단체)의 관찰활동 주임이자 간사장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라디오 방송국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으며, 다년간의 임상 치료와 기술 훈련을 거쳤으며, 전문적인 입안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대학생과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 봉사 훈련 프로그램의 자문이며, 선별된 주제에 대한 강연자, 포모사 적십자사의 회원이기도 하다.

[illegible]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극빈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2000년 7월		2000년 8월		2000년 9월		2000년 10월		
장 소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비 고
지 룡	1	2,000	1	2,000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9	26,000	10	27,000	10	24,000	7	18,000	2
타 오 웬	1	2,000	1	2,000	1	2,000	1	2,000	3
신 주	1	3,000	1	3,000	1	3,000	1	3,000	4
미아오리	2	6,000	2	6,000	2	6,000	2	6,000	5
타 이 충	9	20,000	9	20,000	7	16,000	7	21,000	6
난 토 우	7	24,200	7	23,200	6	21,000	6	23,000	7
치 아 이	6	13,000	6	13,000	6	13,000	6	13,000	8
까 오 핑	4	11,000	4	11,000	2	5,000	3	9,000	9
타 이 풍	4	10,000	4	10,000	4	10,000	4	10,000	10
평 후	2	4,000	2	4,000	2	4,000	2	4,000	11
화 렌	-	-	-	-	1	5,000	1	4,000	12
월별 소계	46	121,200	47	121,200	43	111,000	41	115,000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에서 펼친 각종활동 지출내역 (단위: 대만달러 NT)

장 소	일 시	활 동 내 용	금 액	비 고
진 먼	2000. 08. 25	대동의 집 방문, 위문금 전달	10,000	A
		대동의 집의 감사장		B
진 먼	2000. 08. 25	진먼 교도소 재소자 방문, 영적 세미나, 위문 공연, 방편법 지도 및 선물 전달	10,000	C
		진먼 교도소의 감사장		D
화 렌	2000. 09. 01	위리현 태풍 빌리스로 인한 이재민에게 구호금 전달	63,000	E
화 렌	2000. 09. 05	화렌 여자교도소 방문, 영적 세미나 및 중추절 선물 전달	10,000	F
타 이 난	2000. 09. 16	타이난 환경보호국이 환경보호활동의 일환으로 펼친 골든 코스트 청소활동 참여	800	G
미아오리	2000. 09.17	시후향의 환경보호운동에 협력,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3,500	H
창 화	2000. 09. 21	지역 주민을 위해 슈웨이 향립 도서관에 영성서적 기증	3,880	I
타 이 풍	2000. 09. 24	하이루이향 무루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이발활동.		
		극빈 노인들에게 위로금과 위문품 전달	19,040	J
타 오 웬	2000. 09. 26	타오웬 여자교도소 방문, 영적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0	
타이베이	2000. 09. 15	타이베이시 룡산 중학교 야간등 설비기금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30,000	K
까 오 숭	2000. 10. 03	까오숭 여자교도소 방문, 영적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9,450	L
타 오 웬	2000. 10. 17	타오웬 여자교도소 방문, 영적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0	
미아오리	2000. 10. 25	시후 내 구조활동을 위해 미아오리 소방서에 경소방차 기증	441,120	M
미아오리	2000. 10. 10	본협회,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부문에 기여한 공로로 시후향청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0	
		합 계	600,790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내 자선구조활동의 경비는 약 1,069,190NT에 이른다 (미화 약 33,412달러)

[illegible]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오디오 테이프

최신 영문판

E75 (테이프 5개)

(영어+터키어 동시통역)

평화로운 마음

터키 이스탄불 강연 1999년 11월 20일

(영어+헤브루어 동시통역)

깨달음을 얻어라 (I)(2)

이스라엘 텔아비브 강연 1999년 11월 21일

(영어)

신을 위해 생명의 빛을 치켜들라 (I)(2)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강연 1999년 11월 25일

E76 (테이프 4개)

(영어+줄루어 동시통역)

보이지 않는 통로 (I)(2)

남아공 더반 강연 1999년 11월 27일

(영어)

신의 자비 (I)(2)

남아공 케이프타운 강연 1999년 11월 27일

최신 영문판

(출판된 적이 없는 초기 테이프)

CE4 (테이프 4개)

자비와 사랑은 수행의 길

포모사 신디엔 1987년 7월 5일/ 9월 6일

마야의 영향을 명확히 알자.

포모사 신디엔 1987년 8월 9일

꿈과 영적 수행 (I)(2)

포모사 신디엔 1987년 8월 30일

출판물 주문은 포모

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로 연락하세요.

Tel : (886) 2-87873935

Fax : (886) 2-87870873

wisdom@m2.dj.net.tw

대만 우체국 송금 계좌 번호 :

19259438

칭하이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최신 영문판

686 영혼의 재회

뉴질랜드 오클랜드 강연 2000년 4월 27일

691 환상은 진실의 반영

필리핀 마닐라 강연 2000년 5월 3일

696 심신을 초월해야 자유롭다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9일

697 물고기를 낚는 미끼풀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0일

698 잠행하는 스승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2일

700 살아있는 성인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1일

701 위대한 가르침을 나누는 법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2일

702 진정한 진보는 세계 평화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4일

703 스승과의 내면의 텔레파시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6일

704 1999년 중추절 첫째 날 공연

미국 플로리다 센터 1999년 9월 25일 저녁

(영어+스리랑카어 동시통역)

687 빛의 전승

스리랑카 콜롬보 강연 2000년 4월 29일

(영어+말레이시아어 동시통역)

688 사랑은 인생의 진정한 본질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강연 2000년 4월 30일

(영어+네팔어 동시통역)

689 깨달음과 무지

네팔 카트만두 강연 2000년 5월 1일

(영어+일본어 동시통역)

693 지혜와 집중

일본 도쿄 강연 2000년 5월 7일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694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

한국 서울 강연 2000년 5월 8일



영적 수행의 비밀스런 보호

칭하이 무상사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
2000년 5월 12일 (원문 영어)

제자: 전 지난 일요일 시후센터에서
입문했습니다. 오불을 배우고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내면의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
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선 소리에 집중해도 아무것
도 들을 수 없었지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들려
요. 너무 흥분해서 남에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스승님: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고요?

제자: 예, 옆에 있던 사저에게요 ……

스승님: 그래요?

제자: 그녀에게 소리에 대해 말했는데, 그녀는 제
게 아무것도 말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어요. 그러니
까 결국 제 잘못된 거죠.

스승님: 축하해요! (스승님과 청중 웃음) 이제 당신
은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겠군요.

제자: 소리를 다시 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까
요?

스승님: 예, 그럴 겁니다.

제자: 정말이요?

스승님: 그래요. 이렇게해서 입다무는 법
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을 탓하진 않
겠어요. 나도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걸 아니까요.
입문 첫 날 여러분은 머리 전체가 천둥소리로 가득
차거나 바다가 들어찬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
다. 평생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대단하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주의사항이라는 건 모두 여
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음에 입문하는 사람
들에게는 “부디 입 조심을 하세요”라고 주의를 주세
요. 안 그러면 체험을 발설해 이심전심의 체험을 잃
게 될 테니까요.

오불도 그렇습니다. 아무데서나 오불을 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선 안 되지요. 그건 밖으로 발
설해선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입문식에서는 무형의
호법들이 바깥에서 부정적인 힘이 접근하지 못하도
록 막고 있기 때문에 오불이 보호됩니다. 부정적인
힘도 오불을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크게 오불을 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
기하면 부정적인 적들이 모여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요. 그들이 접근하고
싫어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일단 가까이 오면 가



만있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지요. 여러분에게 끌려오긴 했지만, 여러분에겐 그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불을 외워줄 때에도 하루종일 하지는 않지요. 이 세계는 그렇습니다. 긍정이 부정을 끌어당기지요. 끌어당긴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접근해 오는 셈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롭다고 하는 것들은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해요. 조용히 간직할수록 체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보호를 받거나 스승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지만, 아무 때나 마구 발설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법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천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다 줄 수 있지요. 이 세상도 신의 창조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창조물의 반사체인 이 세상은 마야의 세상으로 다른 구역에 속하며, 다른 힘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Enemy of States - 국민의 적”(영화제목)처럼 스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와 그 외의 것들에 대해 발설해선 안 되지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승들을 곤란에 빠트렸습니다. 스승의 정체를 알고는 스승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려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들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

래서 우리는 조용히 일해야 해요. 고대로부터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퍼온 많은 스승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에겐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역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승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체험과 모든 것, 높이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땐 문제가 생기겠지요. 여러분 모두 마야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체험을 말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온 것은 모두 그곳, 내면에 속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외면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건 마치 정부를 위해 적국에 들어가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신임 받는 비서, FBI의 비밀요원으로 다른 국가의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 갔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밝힌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스파이들은 조용히 일하지요. 그들은 세상을 단박에 뒤엎을 정보를 갖고 있어도 남에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 가끔 신문을 보면 스파이의 정체가 드러나도 부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지요! 정말 그들은 이렇게 부인도 모르게 혼자 일합니다. 어떤 때는 같은 스파이끼리 일을 할 때에도 서로의 신분을 모릅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묵묵히 수행해야 합니다.





오해를 딛고 깨달음으로

레이첼 앤 애더리 사저 / 이스라엘 벳 헤렛 (원문 영어)

남편은 1997년 8월 런던 선에서 입문을 했다. 당시 남편이 사교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그가 관음법문에 관심을 갖는 걸 반대했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더니 매일 방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음법문”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그는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차안과 집에서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를 들었으며 스승님의 책을 읽었다. 이 모든 것이 내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정말 놀라웠다. 특히 책을 읽는 건 더욱 놀라웠는데, 그건 내가 남편을 안 이후 그가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난 그의 관음법문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진지하고, 이제 그가 입문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입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입문 승인 소식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두 달도 되지 않아 그는 런던 센터에 전화를 걸어 왜 그렇게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지 따지다가 마침 런던에서 스승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선도 열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의 소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스승님께 입문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입문할 때 필요한 3개월도 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화가 났다. 그를 영원히 잃는 것 같이 느껴졌고, 또한 그가 명상과 영적 수행에 빠져 나와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내줄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급기야 나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사이엔 이제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 헤어지는 게 불가피해 보였다. 그가 영적 고속도로를 따라 로켓처럼 달려가는 반면, 난 조용한 길가를 따라 느리게 걷고 있는 것 같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입문하고 와서 그의 새로운 삶과 발견에 대해서 하루종일, 매일 마치 목사처럼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어느 날 그에게 헤어지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그는 조용해졌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처음에 그토록 두려웠던 건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막상 그 후 그가 명상이나 수행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삶에 생긴 커다란 변화로 인해 내 잘못된 거의 잊고 지냈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이해심과 참을성이 많아졌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내가 존경할 정도로 놀라운 결단력도 갖게 되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변화는 미세한 것들이었지만, 미세한 변화가 조금씩 더해져 결과적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편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비디오를 몇 개 보고, 스승님 책도 읽기 시작했으며 남편과 같이 차를 탈 때에도 스승님의 오디오를 듣는 것에 동의했다. 나중에는 다른 입문자들을 만나고 방편법을 배웠다. 나는 최선을 다해 수행했지만 그 당시 우리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이 있어 매일 명상하기가 어려웠다.

남편은 최선을 다하라고 부드럽게 권하며,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결국 난 1999년 6월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천천히 깨닫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던 것이다. 스승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해내신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우아한 실외등



디자인: 칭하이 무상사

스승님은 이전 스승님의 테이블, 천장, 벽 램프 시리즈에 이어 또 하나의 실외등 시리즈를 디자인하셨다.

‘천상의 연꽃’, ‘감로잔’ ‘대지의 어머니’ 등 이 새로운 등은 우주의 무한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영원토록 사람들의 가슴에 천상의 지복을 심어준다

대지의 어머니

이 동그란 모양은 ‘하나’의 양면인 음과 양이 만나 조화를 이룬 모든 창조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은 온 우주와 창조의 무수한 형태들을 감싼다. 진리는 그 빈 공간에서 시작하며 그 ‘하나’를 낳는다. 그 ‘하나’는 ‘둘’을 낳고 다시 ‘셋’을 낳으며 만물을 창조해 파사로운 대지의 어머니 품인 ‘하나’로 다시 되돌아간다.

감로잔

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영묘한 감로수가 이 신성하고 순수한 잔을 채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신의 아이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

천상의 연꽃

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이 싱그럽고 순결한 천상의 연꽃은 다섯 세계를 뜻하는 꽃잎 속에 그 고귀함을 피워낸다. 여러분 모두 깨달음을 얻고 천상의 연꽃을 영광되게 하길.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이 겨울을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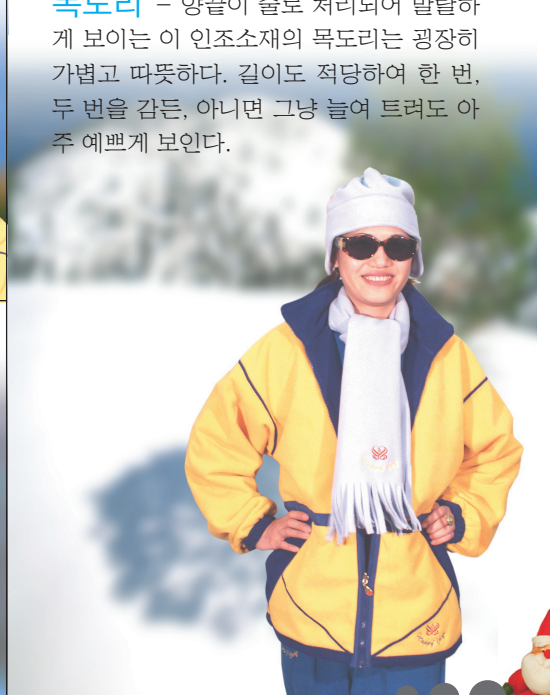
이 번 크리스마스에는 '해피요기' 사랑스런 모자와 목감싸개, 목도리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올 겨울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이 멋진 이 세 가지 다용도 소품은 외출하거나 집에서 명상을 할 때 등 어디서나 따뜻함을 더해주고 스승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목도리 - 양끝이 솔로 처리되어 발랄하게 보이는 이 인조소재의 목도리는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다. 길이도 적당하여 한 번, 두 번을 감든, 아니면 그냥 늘어 트려도 아주 예쁘게 보인다.



목감싸개 - 이 목감싸개는 여러분이 이마 쪽으로 올려서 따뜻하고 멋진 헤어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목을 감싼 후 자신에게 알맞은 보온에 맞도록 조임새로 고정할 수 있다.



사랑스런 모자 다용도 기능을 가진 소품으로 원통 모양을 이용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 귀를 보호할 수도 있다. 모자 위 부분에 끈이 달려있어 그것을 잡아당기면 동그랗고 따뜻하며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모자가 된다. 당긴 끈을 다시 잡아 풀면 통풍이 된다. 모자의 깊이는 접지 않으면 눈을 가릴 정도로 길다. 동그란 모양의 귀마개와 함께 이 사랑스런 모자는 밤에나 이른 아침, 혹은 야외에서 명상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눈가리개로 사용할 수도 있어 집이나 비행기 안에서 잠잘 때 눈을 덮을 수 있다. 거리에 나갈 때는 모자 밑단을 접어 올려 모자 속 색깔을 노출시킬 수 있다. 그 모자의 색이 옷 색과의 배색에 따라 모자는 멋지게, 혹은 귀엽게 보일 것이다.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모자를 활용해 머리밴드로 사용해보거나 목으로 끄집어내려 목감싸개로 사용해 보라. 얼마나 멋진 디자인인가!

